

여야·세월호 유가족 첫 '3자회담' 성과없이 끝나

세월호법안 처리 문제 등 오늘 다시 만나 협상키로 국회 본회의 정상화 주목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3자 회담을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30일에도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양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등과 나란히 서서 포토타임을 가진 뒤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협의에 들어갔다.

세 사람은 세월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조서권을 부여하는 문제, 특별검사추천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집중적인 협의를 벌였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만, 유가족들이 이날 밤 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30일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아 일정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상이 끝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3자 회담 통해 많은 대화 나눴다"며, "내일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오늘 저녁에 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을 예정이며, 내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3자 회담에서 야당과 유가족대책위측이 협상안을 갖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야당의 협상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은 대신 특검 부분에서 유가족을 배려하는 다른 대안이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회

동 내용을 보고하고 30일 본회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는 사흘 만에 회동,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법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계류 안건을 처리할지 여부와 세월호 특별법 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본회의에 야당이 조건 없이 들어와 안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답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로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

'입법 제로' 상태가 1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협상이 계속 팽팽선을 달리면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국정감사 실시 관련 안건 등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루면서 30일 본회의에는 계류 안건을 상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왼쪽부터)·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지지율 18% 창당 후 최저치 추락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치인 18.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해의 순반향과에 힘입어 5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2~26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44.2%, 새정치연합은 2.7%포인트 하락한 18.0%를 각각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새정치연합은 문화상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었음에도 김연희 의원의 대리가사 폭행사건 연루 혐의가 계속 보도되면서 지난 24일 일간집계에서 17.0%까지 떨어지는 등 통합창당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각각 2.5%, 2.0%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2.5%포인트 상승한 32.1%로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51.8%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한 44.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6.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게임등급 분류 ‘국내용’ 해외 업체는 통제 불능”

박주선 의원 지적



청소년 보호 및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게임등급 분류제'가 해외기반 게임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소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르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의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였고, 페이소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서비스 중인 44개 한글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혁신위 첫 회의...공천 개혁 등 초점

부위원장 나경원 의원·김영용 교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29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쇄신 마련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당내외 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세대·지역갈등,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민생 혁신을 포함해 죽집게 혁신을 할 것"이라며 "혁신위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빅텐트를 마련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내달 2일 끝장토론을 통해 논의

과제를 선정기로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위는 의제를 설정한 뒤에는 매주 월,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공천 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당 체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부위원장에 나경원 의원과 김영용 전남대 교수를, 간사에는 안형환 전 의원, 대변인에는 민현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혁신위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순항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혁신위가 활동할 6개월 동안 쇄신 내용과 방향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 박근혜)계를 위주로 채워 나가자 친박계는 노



나경원 의원 김영용 교수

전 국민경선제를 포함한 국회의원 공천 방식을 바꾸고 대선 후보 경선 규정에 손을 댈 경우 권력 다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혁신의 의제를 새누리당이 선점할 수 있다"며 "6개월 시한부 조건의 혁신위가 과연 혁신의 끈넛츠를 채울 수 있는지 의문이며 내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새정치 수석 부대변인 김정현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김정현 부대변인을 수석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성 출신인 김 수석 부대변인은 금고고와 서강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전남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중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김진욱·허영일·강연재 상근 부대변인의 유임을 결정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터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앞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담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경품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하신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독교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 사거리